

마음 통한 다섯 여자 '세상 흔적'

사진작가 서양화가 '죽장망혜' 전 ... 서신갤러리서 10일까지 전시



신은경 作 '스트레인저(stranger)'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 강산 들어가니, 폭포도 장히 좋다. 여산이 여기로 다..."

대지팡이를 짚고, 짚신을 신고, 조롱박만을 찬 간소한 차림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린 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산천을 구경하는 내용을 엮은 단가의 한 대목. 마음의 틀을 벗어 던지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연 다섯 여성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사진작가 김혜원 신애자 신은경 양지영 그리고 서양화가 임현재씨가 세상 이곳 저곳을 다녀온 흔적을 전시장에 모았다. 오는 10일까지 전주 서신갤러리에서 열리는 사진전 '죽장망혜'.

지난해 '뷰 포인트((view point) 전'으로 시작된 백제예술대 사진과 동문들이 주축이 돼 진행하고 있는 다큐멘터리프로젝트 기획사진전 그 두 번째 자리다.

해외 강산풍경을 찾아다니며 구경한 견문과 감상을 짧은 사진영상으로 옮겨놓은 이번 전시회는 작가들의 지난 2년간의 기록물.

만안니 김혜원씨는 몽골여행 풍경이다. 그 동안 작업해온 'Commercial Landscapes'의 시리즈로 사막과 초원 등 오지로 빠져가는 세계 속 유료화된 상업공간을 통해 소비시대에서의 '땅'의 양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현재 독일 유학중인 양지영씨는 독일 학우들과 미국수학여행에서 촬영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cinema #1~8'란 제목을 단 작품들은 아웃포커스로 촬영해 오래된 영화처럼 연출됐다.

신애자씨와 신은경씨는 지난 2월 태국여행에서

촬영한 이미지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신애자씨는 화려한 수도 방콕의 왓 프라깨오 사원을 보다 더 현란하고 위압적으로 드러나도록 포토샵으로 합성했다. '스트레인저(stranger)'를 주제로 한 신은경씨는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악생의 자연이 이제 관광지가 되어버린 풍경들을 포착했다.

서양화가인 임현재씨는 이탈리아와 스위스 여행 중 촬영한 것으로, 여행자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이동 수단 안에서 바깥 풍경을 담

/김미순기자 zzang@

전시

희상스님 우진문화공간서 전시



지난해 불일미술관전에서 1 천 캘레 고무신 설치 작업으로 주목 받은 한국화가 희상 스님(43)이 전주전시회를 연다. 3 일부터 15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전시실.

우진문화재단 제24회 청년작가초대전 주인공인 희상 스님은 전주출신으로 스무살 해인사로 출가, 통도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았다.

대구 청도의 운문승가대학을 마치고 동국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독일 브레멘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했다.

랫돌 위 벗어놓은 고무신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은 스님은 고무신에서 발견한 다양성과 통일성의 작업의 발달이 됐다.



김종민 作 '가을'

한국의사미술가 17인 초대전

의술과 미술. 두 분야에서 열정을 불태워 온 한국의 대표적인 의사미술가 17인의 초대전이 오는 4일까지 전주 수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과 인천, 평택, 전주에서 협력 의사이며

'이탈리아 판화 400년 전시회'가 오는 11월 4일~12월 3일까지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전시된다.

이탈리아 판화 400년 전시회는 (사)한국공예문화협회와 서동아트비전이 주최하고, 이탈리아 판화 400년 주

진위원회 주관으로 르네상스의 본거지인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장된 오리지널 판화 11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신고전주의, 낭만주의까지 근대미술 이전 서양미술사의 흐름이 한 눈에 볼 수 있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

전시작품은 서양 미술가의 400년 동안 중심

에 서 있던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르코 폴로 등이 그려낸 그림과 판화이다.